

BASF, 지역사회와 따뜻한 겨울나기

한국BASF가 임직원 주도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다.

한국BASF(대표 신우성)는 1월18일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참여해 서울역 광장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 배식을 도왔다.

EP(Engineering Plastics) 사업부 직원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봉사활동에는 서울 사무소 임직원 20여명이 적극 동참해 봉사에 임했다.



1월8일에는 한국BASF 임직원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로 모은 2000만원을 서울시 후암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가브리엘의 집>에 전달했다.

2011년 처음 시작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역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회사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울산, 여수, 군산, 안산 등 6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BASF는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라 BASF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공장의 <늘사랑 봉사대>는 2005년부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여수지역 아동센터, 여수장애인 협회, 다문화가정 등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1년에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자활센터를 수리하며 지역사회와 8년 넘게 함께하고 있다.

한국BASF 신우성 회장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3/01/28>